



“어르신 떡국드세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원들이 2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떡국’을 대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운전자 10명중 4명 ‘깜빡이 안 켜다’

교통안전공단 “기본 수칙만 지켜도 사고 20% 줄여”

운전자의 자동차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정지선 준수율이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58.7%이며 정지선 준수율은 64.2%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4년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정지선 준수율이 각각 70.6%와 77.7%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나란히 10% 포인트 낮게 떨어진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런 경향에 대해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식이 미흡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으로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주영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정지선을 지키거나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사고와 별로 관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특히 보행자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방향지시등 점등과 정지선 준수를 포함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면 사고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초겨울 추위 녹이는 ‘아름다운 선행’ 감동

수년간 폐지 수집과 노점상을 하면서 번 돈으로 남몰래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아름다운 선행이 초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장씨의(73·광주시 북구 운암동)씨와 김재식(가명·43·광주시 북구 일곡동)씨. 장씨는 2일 고철·빈병·폐지 등을 수집해 번 돈 55만 원을 운암2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지난 1년간 일주일에 사나흘씩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 수집으로 모은 돈이다. 장씨의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게 주변인들의 전언. 하지만 장씨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을 본 뒤 지난 2007년부터 폐지 수집을 하기로 마음먹고 남몰래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장씨가 이날까지 폐지 수집 등을 모아 기부한 성금은 모두 176만원. 96세의 노모와 아내, 4남1녀의

- 북구 운암동 장총의씨 수년간 빈병·폐지 모아 번돈 176만원 전액 기부
- 북구 일곡동 김재식씨 사과·배 파는 노점상 매월 수익금 20% 기부

가장으로서 넘겨지 않은 형편이지만 장씨는 틈틈이 시간을 내 폐지 수집을 하고 있다. 장씨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폐지 수집을 하게 됐는데,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북구 일곡동에서 굴·사과·배 등 과일가게 노점상을 하는 김씨는 매월 수익금의 2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있다. 특히 명절

이나 연말이 다가오면 일곡동 경로당 23곳을 직접 찾아가 과일을 지원해준다. 기부금액만 한 해 평균 400만~500만 원 가량인데, 올해로 5년째다. 아내와 자녀 1명을 둔 김씨의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 않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면 이웃사랑 실천을 멈출 수 없다. 김씨의 선행은 일곡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소개로 알려지게 됐다. 김씨는 “10여 년 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웃들과 많이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를·사진까지 공개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들. 이들은 “그리 큰 일도 아니다”라며 겸손해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과서 수정명령 철회하라”

광주교육단체 반발...교육부 상대 취소 소송도

교육부가 4·19와 5·18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과서 표현을 수정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와 나머지 교과서의 수정명령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교과서를 제외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과 공동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네트워크는 “교과서 교과서는 여전히 200개 이상의 오류를 안고 교과서로 일체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화 운동을 힐뜩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만들어 모 든 교과서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교과서 교과서 구하기’를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네트워크는 “교육부의 수정명령도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라며 “검정업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재검정한 것도 재량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 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대, 미공개 신기술 1100여건 공개

5·6일 ‘테크페어 2013’ 행사

전남대가 제강의 원료인 망간(Mn)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해 이차전지 전극소재와 비료 원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동안 돈을 주고 폐기해야 했던 산업부산물이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의 주원료가 된 것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대

학의 연구성과를 지역기업에 소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학과 산업체, 지자체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소통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대는 특허등록이 2010년 151건, 2011년 183건, 2012년 2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수입 또한 2010년 6억여원에서 2013년 10월 현재 12억여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4분 해질 17시 20분 달출 07시 16분 달몰 17시 46분

당분간 포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감기 조심 요구된다

광주	맑음	1/11℃
목포	맑음	3/10℃
여수	맑음	4/12℃
나주	맑음	-2/11℃
완도	맑음	2/12℃
구례	맑음	-1/12℃
해남	맑음	-1/12℃
장흥	맑음	-2/12℃
순천	맑음	-1/11℃
영광	맑음	-1/10℃
진도	맑음	1/11℃
전주	맑음	0/11℃
군산	맑음	0/10℃
남원	맑음	-2/10℃
혁신도	맑음	7/1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서~북서 0.5m 높음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서~북서 0.5~1.0m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목포 01:40 07:06
서~북서 0.5m 14:27 19:47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여수 09:16 02:32
서~북서 0.5~1.0m 21:18 15:18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날씨						
최저/최고	1/12	2/11	3/8	-1/8	-2/7	2/5

중국발 미세먼지 광주·전남 영향권

내일까지...노약자·어린이 야외활동 자제 당부

중국에서 넘어오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3~4일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PM2.5)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약자나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는 이날 오후부터 서풍을 타고 수도권으로 유입된 후 3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기질 예보시스템의 ‘한반도 대기질 예보자료’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미세먼지(PM10)가 유입되기 시작, 다음날 3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일 밤에는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80µg/m³를 넘을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환경과학원 등은 전했다. /박정욱기자 halo@

광주지법 ‘생생사법마당’

겨울방학 교사·대학생 대상

광주지법이 겨울방학 기간 지역 교사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생사법마당’을 실시한다. ‘생생사법마당’은 광주지법교육연수원과 공동으로 광주지역 초·중·고교사들과 대학생들에게 법조 진로교육, 모의재판(자치법정), 법 관련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현직 판사들이 직접 나서 보호감독 의무, 교과서 속 판례, 모의재판 등에 대해 강의한다. 교사 참가신청은 6일까지 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연수는 2014년 1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대학생들을 위한 ‘생생사법마당’(대학생인턴십) 참가자들도 9일부터 13일까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2014년 1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황칠나라
DENDRO-PANAX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동반자를 모십니다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전액은 식품첨가물입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 영양 사과 영양 어느것도 놓칠 수 없는 황칠나라만의 고집!!!

황칠(愛)비법 (주)
안전 성분 함유 황칠(愛)비법 300ml